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송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글판,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쫘!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컨텍스트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a.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망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월7천원업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하여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조윤선을 위한 특강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어제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 지금까지 4년간 이 나라를 지배한 악귀의 일면이 노출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일부 증인들의 고발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을 밥 먹듯 하며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하려 인간됨을 쓰는 다른 애잔한 부역자들의 혀놀림이 그러했습니다. 무단 이든 사유가 있던 불찰한 자의 역사와 국가 공동체 또 국민에게 오만솔솔한 태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소득이 있다면 아무한테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준 점일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 막바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한 바 있던 시인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분 발언은 주목됐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 파문을 한마디로 요약해 '야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맥카시가 채플린을 공산주의자라며 독일로 추방시켰다. 채플린이 만든 영화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이 맥카시다. 그런 광기의 시대가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연된 거다. 이런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편 가르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화 공안통치 시대에 살았던 것이다. 이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 사회주의자였던 파카소의 그림은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 사르트르, 스콧 니어링의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또 살아야 하나.”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10일(화) 1부 | 삼성 드디어 박근혜 포기 '협박해서 돈 줬다'

[오프닝] 도종환, '블랙리스트' 주역 조윤선에 1분 특강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조선일보 "일본 친후파도 한국 번덕에 교섭 귀찮아 해"
- "박근혜가 창비와 문학동네 언급하며 지원 삭감 지시"
- "김기춘, 장관에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수차례 강조"
-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제출...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
- 'AI 맹당 방역'...정부, 13년간 9천억 날렸다
- [뉴스듣기능력평가] '남 괴롭혀 즐거운 경우' 관한 퀴즈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메일 스트리프 성토히자... 트럼프 "영화계는 좌파 일색"
- 중국 군용기 10대 방공구역 침범...영공 침탈은 아니지만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삼성전자 박상진의 자해 해프닝으로 본 재벌의 기만술
- 블랙리스트 파문이 경제학적으로 특히 괴심한 이유
- [공화국 논평] 조급증 환자 아베 대한 중대조치

조선일보야말로 개쓰레기

朝鮮日報은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민족지

“한국은 교섭하기엔 어지간히 귀찮은 나라다. 한국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를 용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내에 한국과 친한 정치인마저 한국에 등을 돌렸다는 보도를 실었다. 소녀상 설치를 문제삼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는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집권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2015년에도 ‘니카이 도시히로’의 발언을 보도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위해 일본이 노력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노력한 결과가 바로 2015년 12월 28일 말도 안 되는 한일 위안부 합의다.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민족지 조선일보, 이거 꼭 보셔야 하나?

문화·예술계 훈장 된 블랙리스트

東亞日報 “대통령이 출판사 지원 삭감 지시”

정부는 연간 지원 예산이 300억 원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들이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는 김상률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게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을 좌파 문예지라고 지칭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정책을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출판사 창작과 비평과 문학동네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우수도서 한 종류당 1000만 원어치씩을 구입해주는 ‘세종도서’ 선정에서 두 출판사는 피해를 봤다.

중앙일보 김기춘 “비판하면 말려 죽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은 김종덕에게 ‘좌파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 서두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자리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빨갱이’라 지칭하고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정책’이라고 불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말살하는 게 박멸, 소탕 이런 걸로 아는 모양이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영화는 국민을 감염시키니 지금 줄을 끊어 말려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기춘이 이런 인간이다. 김기춘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었지?

경향신문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만’ 인정

어제 있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답변 태도. 보신 분들은 혈압수치가 많이 오르셨을 것이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니까. 조윤선은 청문회장에 오후 2시반 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을 거부하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니까 비로소 나온 것이다. 출석 이후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거부권을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5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고 묻자 결국 그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고,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37회에 걸쳐서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 이재용 정조준

朝鮮日報 삼성의 ‘여론전’ 시작되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동시에 소환하며 특검의 칼끝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누고 있다. 특검이 삼성을 겨냥하는 것은 ‘대가를 노린 뇌물’이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하지만 삼성은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지원했을 뿐 합병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오늘부터 삼성이 언론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기획한다는 제보를 폭로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삼성의 최순실 지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뒤 이뤄졌기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실었다.

한겨레 특검, 삼성 ‘뇌물죄’ 정황 파악

자,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한달여 전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228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에 2015년 6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은 최순실의 측근인 승마협회 박원오 전무가 재직시절 작성한 것이다. 결정 이후가 아니라 결정 이전이었다.

참 내려가고, 세월호 올라오라

‘서울신문 참, ‘세월호 7시간’ 헌재에 제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답변서에는 박근혜가 당일 아침 8시 반에 윤전주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챙겼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와의 씨름했다는 말도 있을 것 같은데, 또한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의료기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거 누가 믿어줄까? 헌재는 청와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JTBC ‘세월호 기록’ 30년 감추려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의 행적을 30년 동안 봉인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7월 17일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은 VIP의 지시라며 박근혜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 할 수 없다.

중앙일보 “최순실 불출석, 박근혜에 불리하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최순실이 안 나온다. 그런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혀를 찬다.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박근혜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요. 검찰도 특검도 아니고, 법원이나 다름없는데 재판에 안 나오면 쟁겨서 안 나온다고 볼 수밖에요.

농민만 잡는 정부

한겨레 ‘AI 방역’으로 13년간 9천억 날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처음 발생한 2003년부터 피해수습에만 9천억 원의 정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들 살 처분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AI’에는 피해수습 비용이 약 2700억 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가축방역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줄어들었다. 한 천억 정도로, 이는 구제역 대응 비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아끼려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AI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시민혁명에 나설 준비가 되었는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만권 정치철학자의 한겨레 기고문 “시민혁명에 나설 준비가 되었는가”다. 일부 소개한다.

“1789년, 혁명의 의미를 온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시젯비늘 같은 규칙적 삶을 살던 칸트의 산책을 멈춘 바로 그 사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역사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늘 지배당하기만 하던 민중이 광장에서 왕의 목을 단두대로 잘라버린 점이었다.

유럽에서 늘 지배계급이었던 자들에게 지독한 공포로 다가왔다. 반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오르게 한 프랑스 민중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통해 우렁차게 선언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자’다. 이 역사적 사건은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듯 혁명의 의미마저 바꾸어버렸다. 이제 혁명은 통치권이 더 이상 지배계급 내에서 돌고 도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는 민중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아직 대한민국은 이 땅의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쓰는 일이 남아 있다. 이 새롭게 쓸 헌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이 말로 이루어내야 할 혁명의 마지막 과제다. 이 헌법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맺는 약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완결 짓지 못한다면 12월 시민혁명명은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남겨질지도 모른다.”

이를 테면 또 다른 기득권자 예컨대 거목 반기문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아프리카 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춧불사랑tv)
오마이뉴스 <광장토론>을 검색해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2017
춧불에 바란다

끝나지 않는 광장토론 07

1월 10일(화) 17시
광화문 캠핑촌
(이순신 동상 앞)

광장토론07_발제후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사회_천정환** (광장토론위원)

발제 | 발표1. 이주노동자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발표2. 광화문캠핑촌 (김경봉,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발표3. 청년 (노서영, 성균관대 학생)
발표4. 노후희망유니온 (정의현 위원장)
발표5. 문화예술 (이양구, 블랙엔트 운영위원, 극작가)

광장토론위원회 | 광화문캠핑촌 |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